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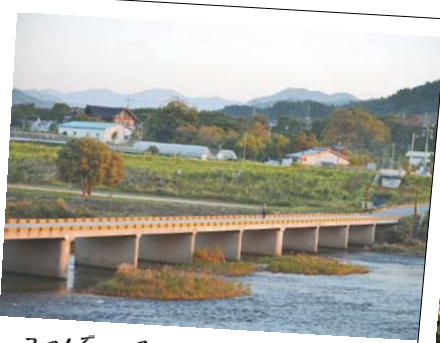
# “드라마 속 걷기여행길, 단풍과 땀싸리로 물들었네”

### 이달의 걷기 여행길... 인기 드라마 속 명소 5곳

벌써 가을의 끝자락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단풍도 못 보고, 일 년에 얼마 안 되는 가을을 떠나보내려한다면 드라마 속 걷기여행길이라도 거닐어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매월 각 지역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하는 가운데, 이달엔 드라마 속 주요 장면에 등장한 길 5곳을 선정했다. 모든 길들은 지역 특유의 정취에 오색빛깔 단풍으로 물들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갯골생태공원



금강둘레길 수도교



인천세무서와 그 옆길



전나무 숲길

####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속 그곳...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금강둘레길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일대에 있는 송호관광지에서 시작된다.

수령 300년이 넘는 송림이 울창하고 금강 상류가 흐르는 송호관광지는 28만 4000㎡(약 8만6000평) 부지에 캠핑장, 산책로, 카라반,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국민관광지다.

빼어난 풍광을 따라 양산팔경 대부분이 모여 있는 금강둘레길은 사색하며 걷기에 좋다. 길은 내내 금강을 끼고 걸으며 숲길과 정자, 영화 촬영지인 수도교를 건너고 금강수변공원을 지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순환형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코스경로 - 송호관광지 매표소~강선대~강변 워터1~합벽정~봉양정~봉황대~게이트볼장 사 무실~송호관광지 매표소 △거리 - 6.6km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 분홍빛 땀싸리로 둘러싸인 '남자친구' 속 그 길...내길 02코스갯골길

시흥의 옛 지명 '늬내'라는 말은 '뽕이 나가는 땅', '늬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구려 장수왕 시절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을 차지한 고구려가 이곳의 이름을 '늬내'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시흥시청에서 출발해 갯골생태공원 그리고 부흥교를 지나 돌아오는 데 약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순환형 코스다.

갯벌의 골짜기라는 뜻을 지닌 '갯골'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주변을 도는 늬내길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여행을 즐겨보자.

△코스경로 - 시흥시청~쌀연구회~전판대~갯골생태공원 입구~제방입구~섬산~빙산대교~빙산펌프장~포동펌프장~부흥교~배



성홍산 솔바람길 사랑나무

수갑문~군자갑문~고속도로다리 밑~시흥시청 △거리 - 16km △소요시간 - 4시간 30분

#### ◆ 만월이가 옛 연인이서 있던 '성홍산 솔바람길'

부여 성홍산 솔바람길은 덕고개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림성 사랑나무를 지나 한고개까지 걷는 길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 '가림성'은 '성홍산성'의 본래 이름으로 백제 시대 도성을 지키기 위한 요충지였다.

성홍산성을 끼고 조성된 솔바람길은 단풍을 비롯한 가을 풍경을 느끼며 걷기 좋다. 코스를 걷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성홍산의 상징과도 같은 사랑나무는 약 5km에 이르는 이 길에서 아름다움의 백미로 꼽히며, 드라마 '호텔델루나'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코스경로 - 덕고개~구교리길 합류점~가림성길 합류점~가림성 사랑나무~한고개 △거리 - 5km △소요시간 - 2시간

#### ◆ 공유가 깜짝 등장한 한 책방이 있는 '인천 둘레길 11코스'

인천 둘레길 11코스는 도원역을 시작으로 우각로 문화마을과 배다

리 현책방 거리를 지나 동인천역에서 끝나는 비순환형의 길이다.

이 코스는 5.2km로 약 2시간이 걸리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자 70~80년대의 가족이 웅기종기 모여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옛 추억의 정취가 잔뜩 묻은 길이기도 하다.

자연보다는 인간과 더 가까운 따뜻한 길,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온 길, 가을에 걷기 좋은 인천 둘레길 11코스를 걸어보자.

△코스경로 - 도원역~우각로 문화마을 옛 전도관~인천세무서~금창동주민센터~창영초등학교~배다리 현책방거리~송현근린공원~수도국산 탐동네박물관~동인천역 △거리 - 5.2km △소요시간 - 2시간

#### ◆ 흰 눈에 뒤덮였던 숲엔 알록달록한 단풍이...월정사 전나무 숲길

오대산 선재길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의 약 10km를 큰 어려움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다.

이 숲길은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등장해 유명한 길이지만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더해져 그 아름다움이 배가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선재길의 '선재'는 불교 성전인 '화엄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동자의 이름으로 문수보살의 깨달음을 찾아 돌아다니던 젊은 구도자였던 선재동자가 이 길을 걸었던 것에서 이름 붙여졌다.

힐링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숲길에서 몸과 마음도 함께 치유된다.

△코스경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매표소 버스정류장~월정사 입구~월정사 경내~선재길 입구 회사거리~오대산장~상원사 입구~상원사 △거리 - 10.7km △소요시간 - 4시간

뉴스1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